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최근 화웨이 제재로 본 미·중 디커플링 동향
유럽 그린딜 추진 현황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최근 화웨이 제재로 본 미·중 디커플링 동향	1
유럽 그린딜 추진 현황	4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6
--------------------	---

최근 화웨이 제재로 본 미·중 디커플링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은영 (liey@kdb.co.kr)

- ◆ 코로나19를 계기로 40여년간의 미·중 협력관계가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인식 확산 가운데,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로 미·중 기술 분야 디커플링(결별)에 대한 이목 집중
- ◆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의 對화웨이 시스템반도체 공급 차단을 겨냥한 미국의 금번 조치가 오히려 자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지배력 약화를 자초한다는 우려 상존
- ◆ 미국이 이러한 충격을 감내하면서까지 중국과의 기술 디커플링을 강화할지는 미지수

□ 미·중 경제 및 기술 디커플링은 최근 화웨이에 대한 미국측 제재 강화로 재점화

- 최근 중국의 대표적 첨단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 측의 제재 강화는 반도체, 5G 통신 등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기술 디커플링의 바로미터로 이목 집중
 - '19.5월 미국은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수출제한 기업(Entity List)으로 지정*
 - * 제3국 기업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 및 부품이 전체 가치의 25% 이상이면 美정부의 수출 허가 필요
 - 코로나19 확산 후 과격해진 '비방'이 오가며 양국간 갈등 수위가 재상승하던 중, 미국 정부는 '20.5.15일 화웨이 제재 강화 목적의 수출관리규정 개정안* 발표
 - * 美기술 및 부품 25% 미만 제품도 개발제조에 美기술 기반 장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美정부 허가 필요
- 동 발표 바로 전날 美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40여년간의 협력에서 'Great Decoupling*'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
 - * FP(20.5.14)는 이를 수십년간 진전된 세계화와 미·중 협력의 산물인 기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정의. 하버드대 교수 Dani Rodrik은 중국이 서구 주도의 경제질서 하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는 오판이었다고 지적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중간 갈등 재점화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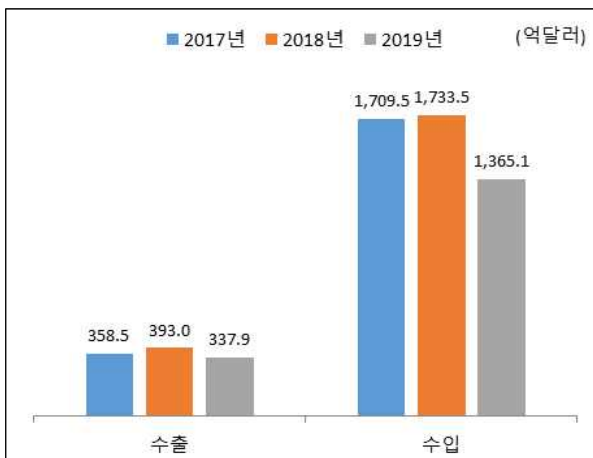
쟁점	시기	미국 입장	중국 입장
코로나19 책임 소재	'20.3월	트럼프,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로 명명	'미군 발원설' 제기
	4월	코로나19 피해의 '보복' 차원에서 對中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	'관세 무기화'의 역효과 강조
홍콩 문제	5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에 미국은 강력 대응 시사	'모든 필요한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고 응수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	5월	중국의 미국산 수입 합의 이행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역협상 파기	리커창 총리 등은 합의 이행 의지 재차 확인
화웨이 제재 강화	5월	화웨이에 대한 해외 생산 반도체 수출 제한	구체적 보복 조치 未언급

자료 : KDB 미래전략연구소 정리

□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는 기술 분야의 '공급력'을 내세워 '수요자'인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이나 세계 반도체 시장 지배력 약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금번 조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화웨이에 대한 시스템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기술 디커플링 혹은 소·부·장 무기화*의 대표 사례
 - *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 '19.7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하여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전격 도입한 것 역시 소부장의 무기화 사례. 이에 한국은 소부장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로 대응
- 화웨이는 지난해 미국의 제재 이후 계열사인 하이실리콘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모바일 AP(Application Processor) 등의 제조를 TSMC에 맡겨왔으나, TSMC는 '20.5월 미국 정부의 발표 직후 신규 거래 중단 선언'
 - * '19.5월 제재 발표 당시에 TSMC는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던 美 인텔, 퀄컴, 마이크론, 英 ARM 등과 달리 거래 유지 의사를 고수
- 한편 미국 첨단기술제품의 對中 수출은 첨예한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18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화웨이를 수출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19년 감소세로 전환
 - * '18.3월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정명령을 신호탄으로 수입관세 부과 등을 통한 미·중 '무역전쟁' 개시
- 미국 첨단기술제품의 대중 수출액은 '17년 358.5억달러 → '18년 393억달러 → '19년 337.9억달러로 '19년 들어 전년 대비 14% 감소
- 대중 수입도 1,709.4억달러 → 1,733.5억달러 → 1,365.1억달러의 유사한 흐름이나 수입 감소액이 수출 감소액의 6배를 상회하며 무역적자 축소
- 핵심 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의 경우, '20.1분기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수입액이 8.9% 증가한 반면 對美 수입액은 0.2% 감소

미국의 對中 첨단기술제품 수출



자료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중국의 '20.1분기 주요국 반도체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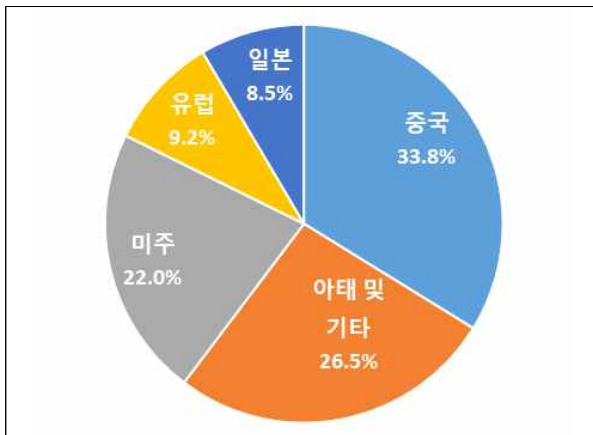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

	반도체		공산품 전체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미국	35.3	△0.2	148.0	△16.8
한국	151.78	2.8	276.5	△4.2
대만	236.89	9	318.5	6.1
일본	48.21	8.4	243.7	△4.2
독일	4.64	△4.7	143.0	△14.6
베트남	47.03	155.1	105.8	70.5
전체	776.02	8.9	2,062.3	△2.5

자료 : ITC Trademap;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6)

- 그러나 세계 최대 수요국이 중국이고 최대 공급국은 미국인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의 디커플링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은 물론 미국 기업도 상당한 충격 불가피
 - 중국이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년 기준 35%로 최대 규모
 - 화웨이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내수시장에 힘입어 '19년 매출규모가 오히려 전년 대비 19.1% 증가
 - 미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8년 기준 45%로 압도적 1위*이나 미·중 기술 디커플링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점유율은 대폭 하락**할 소지
 - * 2위 한국 24%, 3위 일본 9% 등과 격차 상당. 특히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47.5%에 달함
 - ** BCG('20.3.9)는 現수출제한기업(Entity List) 유지時 8%p, 중국기업 전체에 공급 중단時 18%p 감소 추정

국가·지역별 세계 반도체 시장 비중



주 : '18년 매출액 기준
 자료 : SIA(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화웨이의 권역별 매출 실적

(단위 : 억위안, %)

	2019	2018	증감률
중국	5,067.3	3,721.6	36.2
유럽, 중동, 아프리카	2,060.1	2,045.4	0.7
아태	705.3	819.2	△13.9
미주	524.8	478.9	9.6
기타	230.8	147.0	57.0
전체	8,588.3	7,212.0	19.1

자료 : 화웨이의 '19년 연차보고서

□ 미국은 의도대로 세계 최대 파운더리 TSMC의 對화웨이 신규 거래 중단을 이끌어 냈으나, 실제 제재의 적용 범위와 화웨이가 받게 될 충격은 여전히 미지수

- 미국의 수출관리규정 개정안은 12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대선이 임박한 10월 발효될 예정이므로 실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
 - 중국과의 기술 디커플링이 단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미국, 혹은 서구 전반의 위기의식 발로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경제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
 - 美 상무부는 지난해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도 자국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시 거래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수 차례 연장 중
- 동 제재로 화웨이가 시스템반도체 수급에 큰 타격을 입을 경우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지원은 메모리가 아닌 시스템반도체와 장비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

유럽 그린딜 추진 현황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유지혜 (ester80@kdb.co.kr)

- ◆ EU는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0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최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
- ◆ 유럽 그린딜은 유럽 기후법안 채택과 1조 유로 규모 그린딜 투자를 통해 에너지, 건축, 산업, 수송 분야 등에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제시
- ◆ 공정전환체계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 시 소외 분야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계획도 포함

□ EU는 '19.12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

-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와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이라는 비전을 포함
 - '19년 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유럽 그린딜에 합의**하였고, '20.3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기후법안(European Climate Law)을 채택
 - * '탄소중립'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신재생에너지발전·조림·탄소배출권 구입 등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상쇄시키는 것을 의미
 - ** 유럽연합 회원국 중 석탄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는 유럽 그린딜에 동의하지 않고 자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2070년으로 주장
- 에너지, 건축, 산업, 수송 등 주요 분야별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고, 1,000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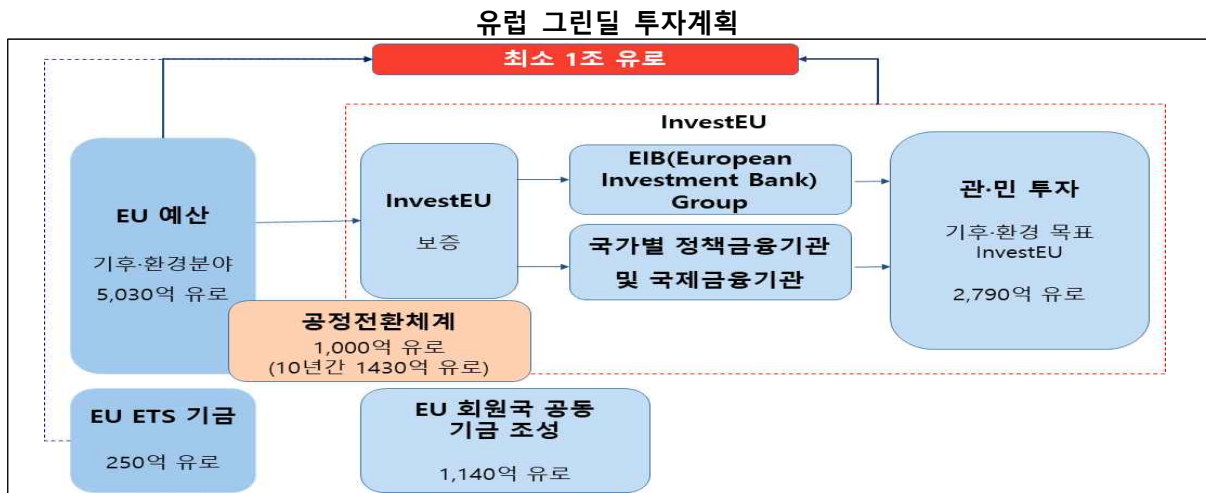
유럽 그린딜 주요 분야별 목표

분야	목표	세부내용
에너지	에너지 분야 탈탄소화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생산과 사용 분야 탈탄소화
건축	에너지절약형 건물 리모델링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건축물을 개조하여 에너지 소비 축소
산업	산업 혁신 지원으로 녹색경제 하에 글로벌 리더 육성	재생 자원 사용률이 12%에 불과한 유럽의 산업을 혁신하여 글로벌 녹색경제 선점
수송	민간 공공 수송분야 청정에너지화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를 더 깨끗하고 경제성있고 건강한 방법으로 개선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9), "What is the European Green Deal?"

□ '20.1월 발표된 공정전환체계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소외분야 지원을 위한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 마련이 목적

- 1,000억 유로 규모 목표로 발표한 공정전환기금(JTF)은 3월까지 75억 유로 수준의 저조한 신규 재원 확보로 논란이 되었으나 '20.6월 현재 400억 유로 수준
-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그린딜 발표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 과정에서 “leave no one behind”로 모두를 위한 전환임을 강조하며 공정전환체계를 발표



주 : InvestEU는 EU내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금융 프로그램이며, ETS(Emission Trading System)은 배출권거래제도를 의미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20)

- EU전문매체 유랙티브(EURACTIV)의 보고서*에서 유럽 그린딜 영향으로 철강, 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의 경우 탈탄소화가 어렵고, 이에 산업구조가 다른 동유럽과 서유럽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

* EURACTIV('20.3), "Europe's New Climate Law : Leaving No-One Behind?"

- 유럽연합 노동조합인 IndustriAll은 유럽 그린딜 영향으로 채광, 에너지집약, 자동차 산업의 11백만개 일자리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
- 유럽의 산업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양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연간 2,500억 유로를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
 - 유럽투자은행(EIB)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비중을 2025년까지 총 자산의 50%까지 늘릴 계획이나 여전히 추가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

□ 유럽 그린딜은 기후변화법을 채택하여 법적 규제와 녹색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유럽의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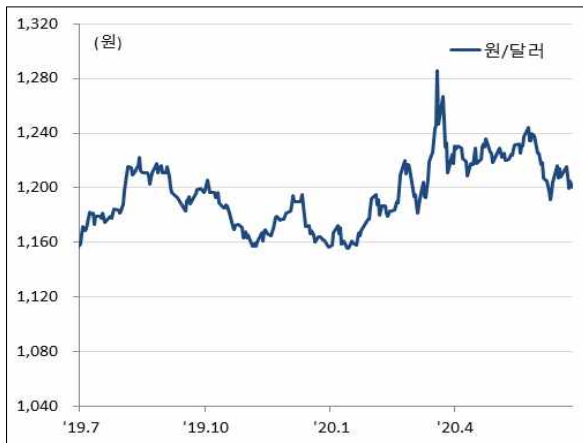
- 한국의 산업은 현재까지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집약산업이 대부분으로, 산업생산 전반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
-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 구입보다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의 그린화 유도 필요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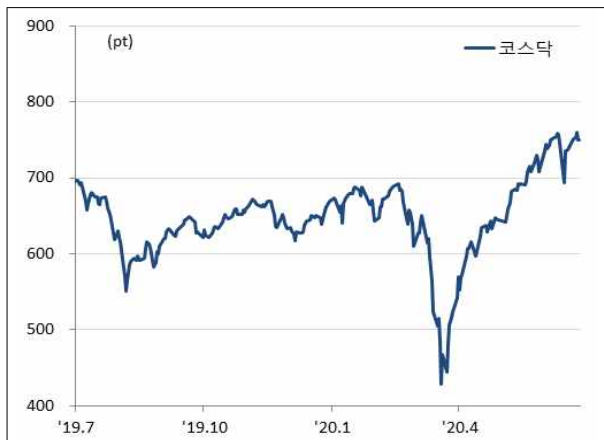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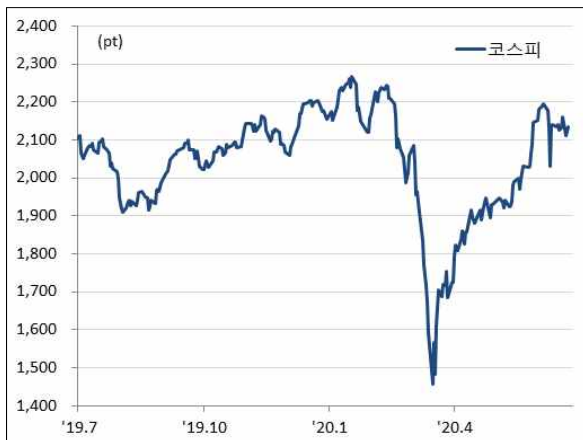
금리 국고채3년 0.811% (3.3bp ↓), 신용스프레드 73.2bp (2.2bp ↓)



환율 원/달러 1,200.6원 (9원 ↓), 엔/달러 107.23엔 (0.36엔 ↑)



주가 코스피 2,134.65pt (0.31% ↓), 코스닥지수 750.58pt (1.15%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884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26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